

노화 과정 및 고령자 관련 연구에서 적절한 용어의 사용: 용어가 내포한 차별과 존중 의미

Appropriate Usage of Terms in Research on Aging and Older Adults:

Discriminatory vs. Respectful Meanings Implicit in the Terms

윤 가 현*

편집위원장

Gahyun Youn

The Editor

(초록)

노화 과정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고령자 대상 차별을 불식하는 방안은 다양하다. 노화 과정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기본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존중 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본 사설은 연구자가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어떤 용어를 선택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와 같은 고정관념이나 차별의 존속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제어 : 노인, 고령자, 노화 과정, 연구 대상자, 피험자

(Abstract)

There are many ways to break down stereotypes about the aging process and discrimination against older adults. Any researcher studying the process or the adults must have a fundamental respect for them. This editorial is intended to inform researchers that the persistence of stereotypes and discrimination depends on the terms (e.g., elderly, subjects) they choose to use throughout the research process.

Key words : The elderly, Older adults, Aging, Research participants, Subjects

* Correspondence to: The Editor,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Gahyun Youn, PhD
(e-mail: you90900@naver.com)

국제노년학·노인의학회(IAG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 Geriatrics)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4년마다 한 차례 개최되며, 제20차 IAGG 대회는 2013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2009년 한국노년학회 제22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0년 6월부터 회장 임무를 맡았는데, 제20차 IAGG 대회 조직위원회 일원으로 활동했다. 우리나라에 앞서 제19차 IAGG 대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2009년 7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었는데, 필자는 그 대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고령자 대상 연구 논문을 쓰고 영문으로 표기할 때 별다른 고민 없이 ‘elderly’라는 단어를 선택해 사용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 제목은 “Marital and sexual conflicts in *elderly* Korean people”이었고(Youn, 2009), 2010년 본 학술지에 게재했던 ‘노인의 건강을 위한 동물매개치료’라는 논문의 영문 제목도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for *elderly* healthcare’이었다(Kim & Youn, 2010).

제19차 파리 대회 마지막 날 폐회식이 개최되기 몇 시간 전 필자는 차기 대회를 승계할 우리나라 대표단이 이용하던 사무실에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차기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폐회식에서의 영문 연설문을 준비 중이었고, 필자를 포함하여 몇 사람들은 이를 읽어보면서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파리 대회의 대표단 몇 분이 그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자연스럽게 마주 앉아 간담회 형식의 대화가 오갔다. 참석 인원은 우리나라 관계자가 5-6명, 파

리 대회 관계자가 3-4명 정도였다고 기억된다. 그때 파리 대회 관계자 한 분이 우리에게 전달했던 첫 마디는 국제연합(UN)에서도 권장하는 사안이라면서 ‘elderly’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라는 조언이었다.

당시에는 그 조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필자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elderly’ 단어 사용을 지양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필자 혼자 그런 노력을 해도 구체적인 내막을 전달하지 못하면 변화의 움직임이 매우 느릴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필자는 본 사설을 통해 그 내막을 소개하면서 학계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UN의 권장 사안을 찾아보던 중 영국의 도시 자치구 중 하나인 ‘North Tyneside’에 소재하고 있는 독립자선단체(Age UK North Tyneside)의 홈페이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고령자에게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단체에서 2019년 게시한 “Is ‘elderly’ offensive?”라는 글에서 UN 관련 언급을 발견했다(Age UK North Tyneside, 2019). 이를 토대로 UN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산하 기구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 1995년 12월 8일 채택한 고령자 관련 일반논평 6번(CESCR General Comment No. 6)을 찾아 읽을 수 있었다(OHCHR, 1995).

CESCR의 일반논평에 따르면, 60세이든 65세이든 상관없이 고령자를 의미하는 용어들이 ‘the older persons’, ‘the aged’, ‘the elderly’, ‘the third age’, ‘the aging’, ‘the fourth age’ 등 다양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는 ‘the older

persons’를 채택했으며 또 이를 UN 총회 결의로 채택했다는 것이다(OHCHR, 1995). 그와 같은 채택을 했던 시점으로부터 거의 30년 이상이 지났어도 대다수가 그 의미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North Tyneside의 한 독립단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논문을 비롯한 수많은 매체에서 고령자를 칭하는 단어로 ‘elderly’, ‘aged’, ‘senior’, ‘senior citizen’, ‘(baby)boomer’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그와 같은 단어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elderly’라는 단어는 의존성(dependency) 및 허약(frailty)이라는 의미와 연결되면서 고령자 전체를 쇠약한, 잘 걷거나 움직이지 못한, 가족이나 사회에 짐이 되는 존재 등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고령자는 의존성이나 허약에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고령자마다 경험이나 능력, 성품 등이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대다수 고령자가 과거 세대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차별적인 의미가 내포된 단어들이 아니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중립적인 의미의 ‘older people’이나 ‘older persons’ 등의 용어 사용이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나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 해소에 더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었다(Age UK North Tyneside, 2019; Morrison, 2023).

그렇다면 나이가 든 사람은 실제 어떤 용어로 자신을 바라보아 주기를 원하는가? 노화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나 조언, 권장 사항을 공유하는 전문가나 고령자들의 공동체인 ‘The Senior List’라는 한 매체 회사에서 55세 이상의 미국인 6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칭하는 용어 비교의 조사를 했

다. 조사팀에서는 고령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8가지 용어를 제시하고서 어떤 용어가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그 용어의 긍정이나 부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그 8개 용어는 ‘mature adults’를 비롯하여 ‘older adults’, ‘retirees’, ‘seniors’, ‘senior citizens’, ‘elders’, ‘the elderly’, 그리고 ‘golden agers’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어로는 ‘mature adults’ 20%를 위시로 ‘older adults’ 18%, ‘seniors’ 17%, ‘retirees’ 16%, ‘senior citizens’ 10%, 무응답 6%, 기타 8%였는데, ‘elders’는 4% 그리고 ‘golden agers’는 1%에 불과했다. 한편 용어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성 평가에서는 ‘mature adults’는 긍정 65%와 부정 14%, ‘older adults’는 긍정 62%와 부정 16%, ‘retirees’는 긍정 61%와 부정 17%, 그리고 ‘seniors’는 긍정 53%와 부정 28%로 긍정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그러나 ‘senior citizens’는 긍정 47%와 부정 34%, ‘elders’는 긍정 35%와 부정 43%였으며, 그리고 ‘golden agers’는 긍정 24%와 부정 57%, ‘the elderly’는 긍정 19%와 부정 65%로 부정의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이 아직 ‘senior’와 같은 전통적인 호칭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그러한 호칭을 원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조사팀에서는 고령자의 호칭으로 ‘older people’이나 ‘older persons’, ‘older adults’ 등의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Clark, 2021).

앞의 조사에 의하면, ‘senior’라는 단어의 선호도는 70세 미만 응답자의 경우 절반에 미치지 못했지만, 80세 이상 응답자의 경우에서만 60% 정도가 선호했다(Clark, 2021). 이에 인종이나 성별, 민족성을 토대로 고령자

를 폄훼하거나 고령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elderly’라는 단어 사용을 금함은 물론이고 (Hekmat-Panah, 2019), ‘senior’라는 단어도 나아가 든 누구에게나 사용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senior’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더라도 생의 후반기를 활기차게 보내면서 살아가는 고령자들은 스스로 아직 ‘senior’라고 여길 나이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젊다고 여기고 싶기 때문이다(Hello Care, 2021). 노화 과정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고령자에 대한 차별의 의미가 담긴 메시지는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지만, 그러한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인지 이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가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연구자가 연구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논문을 쓸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고령자나 노화 과정에 관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존중의 의미가 담긴 폭넓은 단어를 사용하고 편견이 내포된 단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떠한 단어이든지 이를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Morrison, 2023).

이제 연구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와 같은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고령자를 의미하는 단어는 물론 ‘연구 대상’에 관한 용어도 함께 짧게 논하면서 본 사설을 끝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이란 연구자가 무엇을 연구하는지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그 대상이 인간, 인간이 아닌 동물, 식물, 세포 등 다양하다. 그중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할 시 그 대상을 ‘연구 대상자’라는 중립적

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대상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를 칭할 때 오랫동안 ‘subjects’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며, 이를 우리말로 ‘피험자’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관습적으로 사용해 왔던 그 용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용어는 매우 부적절하다.

피험자(subjects)라는 용어에는 수동성(passivity), 순응이나 순종(compliance), 지배나 통제(subjugation)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 피험자는 연구자의 지식 탐구에 있어서 단순한 물건이나 물체, 수동적인 물질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이다. 근래 인간 대상의 연구 윤리 지침에서는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의 중요성 및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에서 그 참여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연구에 이용당하는 의미가 담겨서는 안 된다. 특히 의료인이 연구자일 때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는 연구 과정에서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의사는 참여자에게 연구 시도 여부에 상관없이 치료는 물론 안녕 상태를 좌우할 수 있고, 정보와 지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의료의 장에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신뢰, 상호 존중, 공감 등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표현할 때 능동성이나 자율성 등을 존중해주고 있는 “participants”나 “volunteers” 단어 사용이 더 적절하다. 이는 연구를 연구자가 아니라 참여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또 참여자의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역할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창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역할로의 전환이다

(Corpuz, 2023).

연구에 참여한 사람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도 참여자나 참가자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하다. 중립적인 의미의 연구 대상자라는 용어 사용도 가능하며, 연구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실험 대상자나 조사 대상자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능동성이나 자율성을 가미한 상태로 표현한다면 연구 참여자(참가자)이며, 영문으로는 ‘research participants’로 표기하면 된다. 역시 실험의 경우 실험 참여자(참가자), 조사의 경우 조사 참여자(참가자) 등의 용어가 적절하다. 필자가 1980년대 초반 미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을 때 한 동료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신의 과제를 발표하는 도중 ‘subjects’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교과목 담당 교수가 곧바로 그 용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research participants’라고 표현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럼에도 아직도 수많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를 영문으로 ‘subjects’ 그리고 국문으로 피험자라 표현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일부 연구자는 별다른 생각 없이 연구 대상자를 ‘elderly subjects’라고 표현하고 있다. 논문에서 본문 내용은 물론이고 제목에까지 ‘elderly subjects’를 언급한 사례도 허다한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e.g., Liu, Fang, An, Jin, Lu, Li et al., 2024; Zammit, Dauvilliers, Pain, Sebök Kinter, Mansour, & Kunz, 2020). 학술대회 등에서 환자의 사례 발표를 하는 연구자도 애매모호한 표현을 금해야 한다. 환자나 고령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더라도

‘elderly man/woman/patient/subject’ 등의 표현은 무의식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편견을 통해 해를 입힐 수 있다. 환자의 나이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 예를 들면, ‘81-year-old male patient’ 등의 표현이 그와 같은 편견을 피하는 방법의 하나이다(Hekmat-Panah, 2019; Morrison, 2023).

비록 심신이 불편한 환자이더라도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또 연구 참여자일 때 연구자로부터도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고령자에 대한 존경심이나 노화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차별이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데 도움이 된다. 고령자 대상 연구자나 노화 과정 연구자가 고령자에 대한 존중의식을 잃지 않고 연구에 참여해야 하는데, 학자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시는 그 차별이나 고정관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학자들이 이를 바로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Hekmat-Panah, 2019; Morrison, 2023)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Age UK North Tyneside (2019, April 12). Is ‘elderly’ offensive? <https://www.ageuk.org.uk/northtyneside/about-us/news/articles/2019/offe>

- nsive-description-of-older-people/
- Clark, A. (2021, May 18). What do older Americans want to be called? The Senior List. <https://www.theselectorlist.com/data/senior-label-study/>
- Corpuz, J. (2023). Reconsidering the terminology: Study participants as “subjects” or not? *Substance Abuse: Research and Treatment*, 17 [doi: 10.1177/11782218231217783].
- Hekmat-Panah, J. (2019). The “elderly” in medicine: Ethical issues surrounding this outdated and discriminatory term. *INQUIRY: The Journal of Health Care Organization, Provision, and Financing*, 56 [doi: 10.1177/0046958019856975].
- Hello Care (2021, June 2). *Is language like seniors and elderly disrespectful to refer to someone over 65?* <https://hellocare.com.au/experts-call-politically-correct-terms-describe-a-geing-older-people/>
- Kim, S., & Youn, G. (2010).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for elderly healthcar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9, 67-84.
- Liu, P., Fang, H., An, G., Jin, B., Lu, C., Li, S., et al. (2024). Chronic 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in elderly subjects: Structure and blood flow characteristics of retina and choroid. *Ophthalmology and Therapy*, 13 (1), 321-335.
- Morrison, S. (2023, December 27). *Don't call me “old” Avoiding ageism when writing about aging*. National Institute on Aging. <https://www.nia.nih.gov/research/blog/2023/12/dont-call-me-old-avoiding-ageism-when-writing-about-aging/>
- OHC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95). *CESCR General Comment No. 6: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Older Persons*. Adopted at the 13th Session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8 December 1995. [doi: 10.9783/9780812205381.307]
- Youn, G. (2009). Martial and sexual conflicts in elderly Korean people.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35, 230-238.
- Zammit, G., Dauvilliers, Y., Pain, S., Sebök Kinter, D., Mansour, Y., & Kunz, D. (2020). Daridorexant, a new dual orexin receptor antagonist, in elderly subjects with insomnia disorder. *Neurology*, 94 (21), e2222-e2232.

Received: July 8, 2024

Revised: July 29, 2024

Accepted: August 1, 2024